

접촉경계 혼란, 대인관계 특성과 군적응의 관계

김 주 희[†]

이 주 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개인의 접촉경계혼란 특성과 대인관계 특성이 군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조 모형을 검증하였다. 우선적으로 이들 관계에서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 중 어떠한 특성들이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의 어떠한 특성들이 상호관련 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군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에 대한 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현역 육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접촉경계 진단 검사지, 대인관계 문제척도, 군적응 척도, BDI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 및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접촉경계 혼란 중 투사와 감각차단, 그리고 대인관계문제의 보복성, 냉담성, 회피성이 군적응과 부적의 상관이 있으며, 우울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접촉경계혼란 중 투사와 감각차단이 군적응과 우울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매개로 간접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결과와 모형이 의미하는 바와 함께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이 논의 되었다.

주요어 : 접촉경계혼란, 대인관계, 군적응, 우울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주희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Fax : 02-747-2132 / E-mail : joo2ssam@hanmail.net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의무병 제도로 일정 연령이 되면 징집이라는 강제적 동원을 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청년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몇 단계의 검사를 거치게 되며 심신이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은 젊은이들이 입대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 특히 엄격한 지위체계 하에서의 통제된 환경에 놓이게 된 청년들은 일반적인 사고 외에도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보여 왔으며, 이러한 부적응 문제를 밝히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군복무 부적응자의 발생자 수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9월 국방부 인사국에서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파악 및 대책검토를 산하기관에 시달하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체허약자, 심신장애자 등 관심보호대상 병사로 분류된 인원은 육군(전체 육군 56만 여명, 국방부, 2005)에만 약 1만 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이것을 대대급으로 환산하면 약 3~4명이 관심보호대상 병사로 분류되는 것이며, 이 같은 현상은 현역 입영자원의 부족사태가 대두되면서 '04년 현역처분기중을 하향조정할 것과 관련한 부작용으로 유추될 수 있다(2005, 김성곤).

일반적으로 적응이라 함은 변화하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Cavanaugh, 2001). 군적응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병사들이 군조직문화의 한부분이 되고 그에 흡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군조직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군적응은 한 개인에게 일종의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 활동이 효과적으로 공식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기본적 가치관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

어져야 하는데, 사회·문화적 가치관이나 배경이 심한 격차를 가지고 있는 의무 복무자들은 자율적 인간성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사고의 잠재성을 보유하게 된다(손지원, 2006). 일반사회에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이나 동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심한 성격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가 있지 않는 한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환경과 개인을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 적응을 이룰 수 있으나, 군대 조직은 상명하복의 관계에 철저히 자신을 적응시켜야 하는 개인들이 모여 있어, 일반사회에서는 적절히 기능하던 개인의 위험요인들이 크게 노출되고 상충하게 된다. 이러한 동일한 위기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은 현상학적으로 부적응한 행동이나 심리적 상태를 보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군입대후 적응기간 동안 불안과 우울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되지만(Pamela, 2006),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남자환자 100명중 23%가 군대에서 발생했다는 조사를 보면 군적응의 어려움과 제대 후 정신적인 문제는 입대 초기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신세대 사병들을 대상으로 한 구승신(2006)의 연구에서도 높은 수준의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병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대 전에 정신질환을 앓지 않았던 건강한 병사들이 군생활 중에 스트레스, 우울이나 불안, 자살이나 타살생각 등을 경험한다는 것은 군생활 자체에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군적응에 관련된 그간의 연구들에서 리더쉽, 입대 후 환경, 가치관,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이러한 연구들이 공

통적으로 제기한 함의는 개인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 자극이나 상황에 직면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체적인 질병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적응의 필요충분조건으로써 스트레스 자극이나 상황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스트레스와 적응간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이전야, 김영환, 2002).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기능 및 대인관계 적응에서의 문제가 우울증의 발생과 지속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Gotlib & Hammen, 1992. 김효영, 1999. 재인용). 김효영의 연구(1999)에서는 회피행동대처와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많을수록 우울증상을 많이 보이며, 대인간 통제감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승신(2004)은 군생활 스트레스, 신세대 가치관(개인주의/평등주의), 정서적 환경지각과 관련된 군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군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에 정서적 환경지각이 상호작용하여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그 후의 연구에서 환경적 변인들 중 인간관계 측면의 변인들이 정신건강을 더 잘 예측하였다고 보고하였다(구승신, 2006). 그리고 손지원(2006)은 군 입대 후 환경과 군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어떠한 환경 조건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으며, 여기에서 격오지와 비격오지에 상관없이 함께 생활하는 전우들에게서 군생활에 도움을 주고받음이 나타났다. 김혜정(2006)은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적응과 정적상관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 중 병영 내 집단 중에서 동료병사

와 선임병사에 대한 지지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공통적으로 사회적 기능 및 대인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우울증상과 적응에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연구들의 제언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입대 병사에 대한 문제해결적이고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시 되는 상황에서 치료 이론에 따른 경험적 연구는 차후의 개입 프로그램 구성에 직접적·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의미 있는 과정일 것이다. 또한 유사한 환경에 놓이고 비교적 동질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입대 병사들의 어떠한 대인관계 특성이 동일한 스트레스 하에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입대 후 병사들의 부적응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율을 기하는 것이라 하겠다.

적응이 변화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이란 관점에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행동 패턴을 조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부적응적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인관계 이론에서 Leary는 대인관계의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대인관계의 역기능적 양상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어, 대인행동을 타인과 관련된 명백하고 의식적이며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고 대인관계의 차원을 제안했다. 지배성, 보복성, 냉담성, 사회적 회피성, 비주장성, 피착취성, 헌신성, 간섭성의 8개 각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그 영역에서의 대인관계 문제를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최종기, 2006. 재인용). 게슈탈트 치료 이론에서는 개체와 환경의 교류접촉은 접촉경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접촉경계란 개체와 환경

과의 경계를 의미하며,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도 경계가 중요하고 만일 접촉경계 혼란에 의해 서로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 서로 간에 제대로 접촉할 수 없게 되어 개체의 성장에 장애가 생기게 된다고 본다(김정규, 1995). 접촉경계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으로서 내사, 투사, 융합, 반전, 자의식(편향), 감각차단 등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접촉의 질을 분석하고 특정행동을 역동적으로 이해하는 방편이 될 수 있고, 현재 어려움을 이해하고 치료적 방향을 수립 및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내사는 외부의 압력을 그대로 흡수하여 성격에 완고한 특성을 지니게 되는 현상이다. 투사를 심하게 하는 내담자의 경우 대개 자기 경계가 경직되어 있고 타인과의 교류접촉이 별로 없으며 피해의식도 많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없고 타인의 이목에 지나치게 예민하며, 심한 방어를 보인다. 융합은 자기와 타인의 구분이 불분명해서 경계가 없는 것이다. 반전은 자기가 분리되어서 자기 자신의 일부에 저항한다.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행동을 자기에게 하거나 자기가 받고 싶은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환경의 자리에 자기를 대신 놓는 것이다. 편향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접촉이나 알아차림을 회피하는 것이다(Yontef, 1993; Polster and Polster, 1973). 감각차단의 경우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여 감각을 둔화, 경직, 마비시킴으로써 접촉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촉경계혼란은 개체와 환경이 직접 만나는 것을 방해하며, 타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적응이 변화하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환경이나 타인과

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갖게 되며, 결국 적응상의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치료적 이론과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 특성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성에 대한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을 제외한 이등병에서 병장까지의 병사들이었다.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군대의 보안과 기밀누설 규정으로 인하여 설문조사가 허락된 강원도 소재 포병연대 소속의 병사 50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특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구절차

부대내부로의 접근이 어려워 부대의 지휘관을 통해 설명한 후 배포 실시하게 하고 수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응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에 지휘관에게 설문지의 목적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배포된 500부 중 500부가 모두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의 누락률이 많거나 중심화 경향이 심한 자료를 제외하고 447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계급	병장	66	14.8
	상병	104	23.3
	일병	190	42.5
	이병	87	19.5
병과	전투병과	312	69.8
	기술병과	62	13.9
	행정병과	43	9.6
	기타	30	6.7
연령	만19세	30	6.7
	만20세	147	32.9
	만21세	157	35.1
	만22세	78	17.4
	만23세	22	4.9
	만24세	6	1.3
	만25세	4	0.9
	만27세	3	0.7
학력	고졸	90	20.1
	대학(전문대)재학중	345	77.2
	대학(전문대)졸업	9	2
	대학원재학중	3	0.7
종교	기독교	153	34.2
	불교	71	15.9
	카톨릭	45	10.1
	무교	173	38.7
	기타	5	1.1
가족의 수입	100만원미만	25	5.6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74	16.6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117	26.2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108	24.2
	300만원이상	123	27.5

측정도구

군적응 척도

군 생활에서의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Stauffer (1956)가 제작한 군 생활 적응 검사를 신태수 (1981)가 한국군 실정에 맞게 변안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4가지 하위 요인은 심신의 상태, 임무수행의지, 직책과 직무만족, 군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 등이다. 신태수의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자들이 총 30문항으로 수정·보완한 후 문항 분석을 실시하여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고 신뢰도를 측정하여 총 29문항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신뢰도 외에 각 문항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별첨에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문항이 유의한 수준의 상관을 보였으나 27번 문항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낮은 상관($r=-0.09$)을 보였으므로 27번 문항을 제외시켰으며, 27번 문항을 제외시킨 신뢰도는 $\alpha = .925$ 로 나타났다. 척도는 Likert 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이 잘된 것으로 측정된다.

우울 척도(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본 연구에서는 Beck 등(1967)의 우울증 척도 한국판(최미례, 2000. 이영호와 홍종용, 1991. 개인용)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후군을 나타내는 21개의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점수 범위는 0~63점 까지 있을 수 있다. 점수 해석은 0-9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 16~23은 경미한 우울상태, 24~63는 심각한 우울상태로 해석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적 경향이 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접촉경계 진단 검사(GCSQ-R)

본 연구에서 활용된 도구는 Caffaro(1989)의 개정된 GCSQ-R(The revised Gestalt Contact Boundary Styles)을 유계식(2000)이 변안하여 수정 보완한 후 각 척도별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거쳐 개발한 한국판 접촉경계 진단 검사로 검사지의 총 문항 수는 142문항으로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 하위요인은 모두 여섯 가지로 접촉경계 혼란 유형을 나타내는 내사, 투사, 융합, 반전, 편향, 감각차단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계식(2000)이 변안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가 문항이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어, 계슈탈트 치료 전문가와 김복순(2002)이 시험 연구를 거쳐 다시 각 접촉경계 혼란 유형별 10문항씩으로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김복순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2-.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대인관계문제 척도

Horwitz, Rosenberg, Baer, Ureno 및 Villasenor (1988)가 대인관계 문제 행동을 보다 용이하고 포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 보고형 대인관계문제 척도 K-IIP(Development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를 김정옥, 권석만, 정남운(2000)이 변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lden(1993)이 통계적 절차를 통해 8개 하위 차원인 지배성, 보복성, 냉담성, 사회적 회피성, 비주장성, 착취성, 헌신성, 간섭성으로 모두 64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임혜진(1996)이 변안하고 오현주(1998)가 이를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최종기, 2005.

재이용).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분석방법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 군적응,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SPSS 15.0과 AMOS 7.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을 시행한 후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간의 상관 분석을 하였고, 접촉경계혼란 유형과 대인관계문제유형, 군생활 적응 및 우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 CFI, RMSEA를 사용하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적응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각 변수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살사고의 경우 1년 미만의 초년병인 이병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는 조사결과가 있고(윤주태, 2003), 일반적으로 입대 초기에 적응상의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력만이 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급, 나이, 가족수입, 종교, 병과는 차이가 없었다(표 2). 학력에 있어서는 고졸자 및 대학재학중 입대한 병사와 대학원 재학 중 입대한 병사 간에만 .05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연구대상에서 대학원 재학 중 입대한 병사의 수가 단 3명에 불과하여 그 편차에 대한 논의를 생략하였다.

변인들의 평균과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접촉경계혼란과 군적응은 -.17의 상관을 보여 접촉경계혼란이 심할수록 군적응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접촉경계혼란과 우울간의 상관은 .39로 정적인 상관을 보여 접촉경계혼란이 심할수록 우울감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대인관계문제와 군적응은 -.31의 상관을 보여 대인관계문제가 클수록 군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대인관계문제와 우울 간의 상관은 .45로 대인관계문제가 많을수록 우울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접촉경계혼란의 하위 요인과 군적응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접촉경계혼란의 투사는 군적응과 -.31의 상관을 보여 투사가 심할수록 적응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접촉경계혼란의 감각 차단은 -.20의 상관을 보여 감각차단이 심할수록 적응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전의 경우 우울과는 .33, 적응과는 -.28의 상관을 보여 군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으나 이론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Yontef(1995)는 반전이 접촉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연구가설에서는 제외하였다. 한편 대인관계문제의 하위 요인 중 보복성과 냉담성, 회피성은 군적응과 각각 -.39, -.35, -.31을 보여 이러한 요인이 군적응과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증

특성	구분	N	M(SD)	F
계급	병장	66	94.31(17.58)	.519
	상병	104	95.36(16.96)	
	일병	190	95.44(17.72)	
	이병	87	92.81(16.71)	
병과	전투병과	312	93.78(17.15)	1.899
	기술병과	62	98.93(20.13)	
	행정병과	43	92.97(15.19)	
	기타	30	97.20(17.25)	
연령	만19세	30	96.53(14.39)	.400
	만20세	147	94.03(17.16)	
	만21세	157	94.43(17.72)	
	만22세	78	95.52(18.98)	
	만23세	22	96.54(15.03)	
	만24세	6	90.83(16.31)	
	만25세	4	89.75(17.40)	
	만27세	3	100.00(6.24)	
학력	고졸	90	92.37(15.76)	2.657*
	대학(전문대)재학중	345	95.60(17.32)	
	대학(전문대)졸업	9	92.22(24.30)	
	대학원재학중	3	72.00(27.78)	
종교	기독교	153	95.25(17.70)	1.535
	불교	71	98.45(15.81)	
	카톨릭	45	91.00(19.34)	
	무교	173	93.87(16.88)	
	기타	5	91.20(16.30)	
가족의 수입	100만원미만	25	96.48(17.00)	1.940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74	90.17(15.83)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117	94.39(16.33)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108	97.13(17.82)	
	300만원이상	123	95.45(18.34)	

* $p < .05$, ** $p < .01$

표 3.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N=447) - 접촉경계혼란 하위척도

	1	2	3	4	5	6	7	8	9	10
1	1									
2	.03	1								
3	.20**	.67**	1							
4	.57**	.39**	.51**	1						
5	.47**	.29**	.38**	.55**	1					
6	.12**	.64**	.59**	.38**	.35**	1				
7	.18**	-.31**	-.28**	-.04**	-.00	-.20**	1			
8	.52**	.75**	.81**	.76**	.66**	.74**	-.17**	1		
9	-.05**	.68**	.55**	.32**	.20**	.54**	-.31**	.58**	1	
10	-.07	.53**	.46**	.15**	.12**	.33**	-.51**	.39**	.45**	1
M	41.06	29.49	35.62	35.07	38.99	31.30	94.70	215.16	164.62	7.80
SD	5.89	7.49	6.67	4.91	4.76	6.24	17.31	26.22	37.75	7.72

* $p < .05$, ** $p < .01$

1. 내사, 2. 투사, 3. 반진, 4. 융합, 5. 편향, 6. 감각차단, 7. 군적응, 8. 접촉경계혼란, 9. 대인관계문제 10. BDI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 군적응과 우울의 모형검증

접촉경계혼란이 대인관계문제를 매개로 군적응과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본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1의 연구 모형을 검증하였다. 완전매개모형은 접촉경계혼란의 투사와 감각차단이 대인관계문제를 통해 군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부분매개 모형은 성격 특성의 투사와 감각차단이 군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대인관계문제를 매개로 하여 군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하위요인은 설명력이 높은 요인으로 구성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모형을 살펴본 결과 접촉경계혼란이 대인관계문제를 매개로

군적응과 우울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군적응과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_{(df=6)}=17.634$, $p < 0.5$; CFI=.991; TLI=.969; RMSEA=.066).

본 연구에서 설정한 두 개의 모형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가 가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7.0 을 사용하여 구조모형 방정식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χ^2 , GFI(Goodness of fit),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 (Tucker-Lewis index)을 함께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위의 적합도 지수에 의해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각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제시한 표 5

표 4.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N=447)-대인관계 문제 하위척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68**	1										
3	.81**	.60**	1									
4	.76**	.52**	.83**	1								
5	.66**	.42**	.74**	.85**	1							
6	.67**	.48**	.69**	.79**	.85**	1						
7	.52**	.50**	.52**	.57**	.65**	.76**	1					
8	.49**	.58**	.42**	.38**	.48**	.56**	.63**	1				
9	.44**	.28**	.42**	.38**	.33**	.31**	.26**	.18**	1			
10	-.39**	-.24**	-.35**	-.31**	-.26**	-.25**	-.12**	-.11**	-.51**	1		
11	.45**	.44**	.41**	.43**	.50**	.52**	.48**	.40**	.39**	-.17**	1	
12	.85**	.71**	.86**	.88**	.87**	.89**	.77**	.68**	.40**	-.31**	.55**	1
M	19.99	21.23	18.68	19.18	20.26	20.81	22.54	21.90	7.80	94.70	215.1	164.6
SD	5.68	4.79	5.94	6.51	6.54	5.93	4.81	5.46	7.72	17.31	26.22	37.75

* $p < .05$, ** $p < .01$

1. 보복성, 2. 지배성, 3. 냉담성, 4. 회피성, 5. 비주장성, 6. 피착취성, 7. 헌신성, 8. 간섭성, 9. BDI, 10. 군적응, 11. 접촉경계, 12. 대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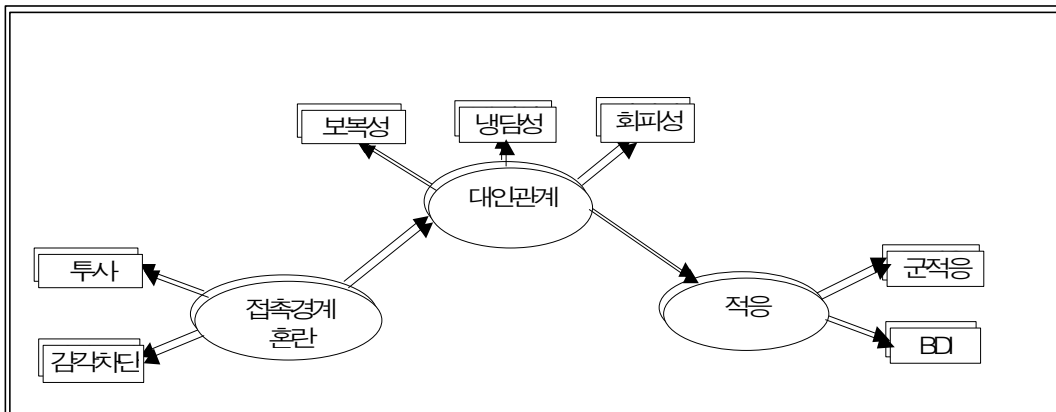


그림 1. 완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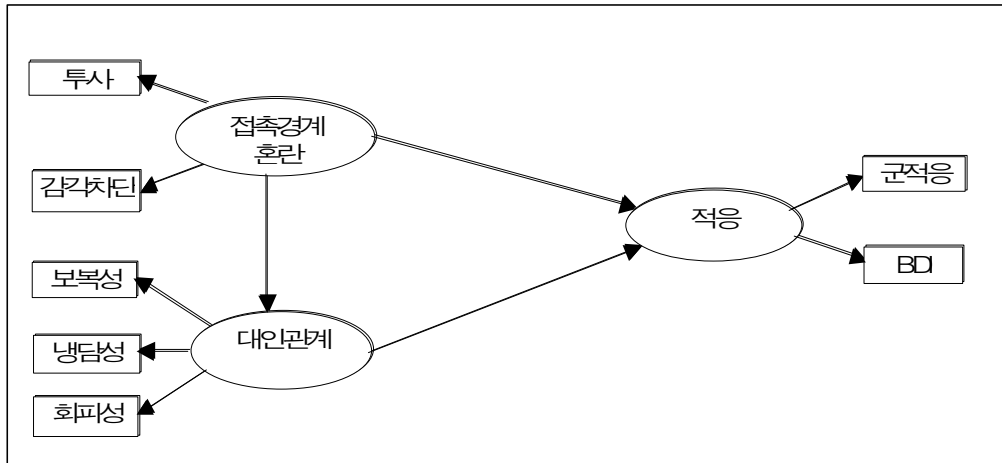


그림 2. 부분매개모형

표 5. 가설검증을 위한 2개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모형	χ^2	df	TLI	CFI	RMSEA
완전매개모형	68.021	12	0.930	0.970	0.102
부분매개모형	17.634	6	0.969	0.991	0.066

를 살펴보면, 우선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을 비교해 볼 때,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GFI, TLI, CFI 모두에서 .90이상으로 수용 준거를 만족하고 있으며, RMSEA도 수용 준거인 .05~.1.0 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또 부분매개모형 역시 GFI, TLI, CFI 모두에서 .90이상, RMSEA .05~.08 사이의 적합도 지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적합도 지수상의 차이가 만족할 만큼 크지 않았다. CFI는 “전집에서 모형오류를 0이다” 라는 χ^2 의 기준을 보다 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한 비중심적 χ^2 분포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대략 0.9 이상이면 그 모형의 적합도를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CFI가 모두 0.97과 0.99로 적합도는 적

절하였다. RMSEA는 표본크기가 상당히 큰 제안모형을 기각시키는 χ^2 통계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로 표본크기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여 측정된다. 0.05이하일 때 매우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며 0.05~1사이일 때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의 RMSEA는 완전매개모형이 0.102였으며, 부분매개모형은 0.066으로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만족되었다. TLI은 제안 모형과 기초모형의 비교와 간명도를 결합하여 측정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0~1의 범위를 가지며 0.9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0.93과 0.96으로 수용준거를 만족시켰다. 이에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간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Delta\chi^2$ 값은 50.387 (df=6)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연구모형의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각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설의 채택 여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접촉경계혼란에서 대인관계로 가는 경로계수는 0.740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대인관계에서 적응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 하였다. 또한 군적응에 영향을 주는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접촉경계혼란에서 군적응

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0.494로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접촉경계혼란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를 추가한 부분매개모형을 완전매개모형과 비교했을 때,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켰다. 따라서 접촉경계혼란이 군적응에 대인관계를 매개로 영향을 미치고, 접촉경계혼란이 군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연구결과 완전매개 모형은 모형들 간의 비교를 통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경계혼란의 투사와 감각차단은 군적응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문제의 보복성, 회피성, 냉담성을 매개로 간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접의 원칙

표 6.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부분매개모형	완전매개모형
접촉경계	—>	대인관계	.74***	.76***
대인관계	—>	적응	.18***	.60***
접촉경계	—>	적응	.49***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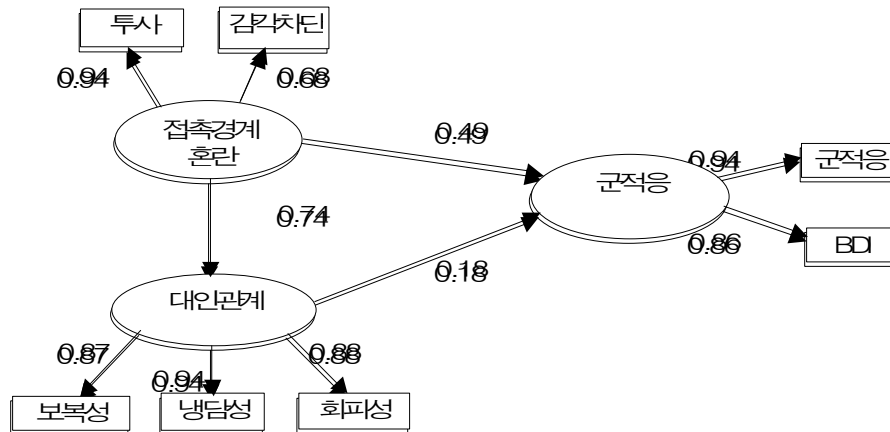


그림 3. 접촉경계혼란, 대인관계문제, 군적응의 관계모형

과 경로계수의 유의미 여부에 따라 부분매개 모형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형의 표준화된 경로 계수는 그림 3에 제시 되어있다.

논 의

본 연구는 현재 복무중인 병사들을 대상으로 군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패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부적응적 행동을 발생시키는 하위요인을 정의하고 있는 접촉경계혼란, 대인관계문제를 통해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또한 접촉경계혼란이 군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와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검증한 매개 모형의 경로계수를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항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대인관계문제가 군적응은 부적 관계를 보여 대인관계문제가 군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러 연구에서 군 생활 적응 영향요인 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간관계, 의사소통의 문제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구승신, 2004). 또한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는 정적인 상관을 보인 반면에 접촉경계혼란과 군적응 간에는 부적 관계를 보여,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가 서로 관련이 있으며,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환경적 요인과 병전성격(For-Wey Lung 등, 2006), 그리고 부모와의 애착이 동료들과의 관계와 군적응에 영향을 미

친다(Ofra, 2004)는 보고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성격 및 대인관계 특성의 영향력에 대한 고려를 시도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개인이 활용하는 성격 특성이 적응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대인관계 패턴과 성격양식 자체가 우울과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스트레스가 만성화되어 우울로 이어지기 전에 성격양식과 같은 개인의 소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관되고 있다는 점(김차희, 2006. 손보영, 2006)에서 본 연구의 성격 및 대인관계 패턴의 영향력에 대한 증거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상에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연구결과 접촉경계혼란은 군적응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문제에 접촉경계혼란의 하위영역이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최종기, 2006)이며 이중 투사와 감각차단이 적응과 우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적응 병사에 대한 개입에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접촉이라는 개념은 개체가 자각한 욕구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건강한 유기체는 환경과의 교류를 통하여 알아차림·접촉 주기를 자연스럽게 반복하면서 성장해간다. 그런데 접촉경계 혼란으로 그 주기가 단절되면 개체는 미해결과체가 쌓이게 되고 심리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그 첫 단계에서 유기체 욕구나 감정이 신체 감각의 형태로 느껴지는데, 이것이 차단되어 신체감각 자체가 느껴지

지 않게 되면 신체의 고통이나 불편한 상태 등이 무시되어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혹은 외부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지각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며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김정규, 1995. 재인용). 군대생활에서의 적응의 요인에 심신의 상태와 임무수행 의지, 직책과 직무만족, 군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가 요구되는데(신태수, 1981) 감각차단과 관련된 우울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해야 하는 병사 개인의 능력을 크게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투사라는 개념은 사명감이 요구되는 군생활에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타인의 특정한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심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임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접촉경계혼란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개인의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이미 결정 지워진 사회적 지지나 병리, 또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환경 간의 불일치한 결과들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설명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부적응적 대인관계의 유형으로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고립된 생활로 숨어드는 회피형(최종기, 2006. 재인용), 애정을 표현하는데 서투르고 쉽게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냉담형(cold), 자신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성향으로 지나치면 타인을 불신하고 의심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나 행복을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한 보복형(vindictive)이 높은 상관을 보여, 계급별로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행동하는 단체로 지속적인 규범 습득 훈련과정과 공동체 유대 속에서 강한 연대의식

형성을 갖는 집단성이 매우 강한 군조직에 적응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기존의 연구에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보다 다수의 병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개인의 특성은 군 적응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적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개입에 대한 함의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상의 한계로 횡단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는데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전후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기 때문에 설문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군조직의 특성에 의해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아 반응 왜곡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공통방법으로 인한 편향의 영향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설문 방법 이외의 다양한 측정방법을 개발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점은 Edna(2004)의 연구에서 적응에 있어서 자기 보고 보다 동료의 보고가 추후에 더욱 신뢰로운 결과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료들이 보고하는 부적응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육군 포병 연대를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전 육군부대 병사들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넷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감안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병사들에게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 특성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여 이러한 특성의 변화가 군적응을 향상시키는 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한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문제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변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적인 측면에서의 접촉경계혼란의 역할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hmuel(2000)등의 연구에서 군적응과 가족관계 및 사회적 지지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요인이 접촉경계혼란과 대인관계 문제를 완충시키는데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승신 (2004).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구승신 (2006). 신세대 병사의 정신건강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24* 2006. 12. pp.64-93.
- 국방부 (2005). 2004 국방백서.
- 김계수 (2006).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한나래.
- 김복순 (2002). 경계선 성격특성과 계슈탈트 접촉경계혼란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규 (1995). 계슈탈트 심리치료. 학지사.
- 김차희 · 이민규 (2006). 성격 양식 및 대인관계 문제해결 능력이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63-175.
- 김효영 (1999). 군생활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지원 (2006). 군 입대후 환경과 군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정 (2006). 병사들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임파워먼트 및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성곤 (2005). 군복무 부적응자 대책에 관한 소론. 김성곤 의원실.
- 손보영 · 정남운 (2006). 자기비판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 패턴: CCRT 방법을 통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006, Vol. 18, No. 1, 21-45.
- 신태수 (1981). 군대조직 구성원의 자아정체감과 군대생활에의 적응과의 연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전아, 김영환 (2002). 스트레스 적응에서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대처방략의 구조모형적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02, No.0* p549~561.
- 조현철 (2003). 구조방정식모델. 석정.
- 최미례 (2000).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종기 (2005). 접촉경계혼란이 경계선 성격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John C. Cavanaugh 저, 김수정 송길연 이지연 등 역 (2001). *성인발달과 노화. 시그마프레스.*
- Gary M. Yontef (1993). *Awareness Dialogue & Process. Essays on Gestalt Therapy.*
- Gary M. Yontef (1995). *Gestalt Therapy. Theory and Practice.* pp261-303. New York: Guilford Pub.

- For-Wey Lung, Fei-Yin Lee, Bih-Ching Shu (2006). The Premorbid Personality in Military Students With Adjustment Disorder. *Military Psychology*, 2006, 18(1), 77-88.
- Ofra Mayseless (2004). Home Leaving to Military Service: Attachment Concerns, Transfer of Attachment Functions From Parents to Peers, and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9 No.5, September 2004 533-558.
- Pamela Davis Martin, Donald A. Williamson, Anthony J. Alfonso (2006).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Army Basic Training. *Military Medicine*, 171. 2:157, 2006.
- Shmuel Shulman, Rachel Levy-Shiff, Miri Scharf (2000). Family Relationships, Leaving Home, and Adjustment to Military Service. *The Journal of Psychology*, 2000, 134(4), 392-400.
- Edna R. Fiedler, Eric Turkheimer (2004). Traits Associated with Personality Disorders and Adjustment to Military Life: Predictive Validity of Self and Peer Reports. *Military Medicine*, 169, 3:207, 2004.
- 원고접수일 : 2007. 12. 21.
1차수정원고접수일 : 2008. 4. 24.
2차수정원고접수일 : 2008. 7. 20.
게재결정일 : 2008. 8. 11.

The Relationship Between Gestalt Contact Boundary Disturbance, Interpersonal Problems, and Adjustment to Military Life

Joo-hee Kim

Joo-hee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gestalt contact boundary disturbance and interpersonal problems on soldiers' adjustment to military life. To accomplish this, we determined which factors associated with gestalt contact boundary disturbance and interpersonal problems impact military adjustment in a negative way. We then identified, correlations between factors in these two areas. Next, we proposed and tested a model designed to evaluate personal characteristics that affect adjustment to military life. We then surveyed army soldiers using a questionnaire that consisted of items from the Gestalt Contact Boundary Disturbance Inventory, Interpersonal Problem Inventory, Military Adjustment Inventory and Beck's Depression Inventory, and evaluated the correlation and mediation effect of the different factors. The results of our analysis revealed that, among gestalt contact boundary factors, projection and sensory blockage,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adjustment to military life. In addition, when interpersonal problem factors were evaluated, retaliation, indifference, and avoidance had a negative effect on military adjustment. Furthermore, the factors that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adjustment to military life were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depression. Moreo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projection and sensory blockage impact military adjustment and depression directly, and that these factors are indirectly mediated by interpersonal problem factor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adjustment to military life, interpersonal problems, gestalt contact boundary disturbance

〈별첨〉 군적응 척도 문항별 분석 결과

번호	문항내용	M(SD)	문항 전체상관	문항 제거시 a
1	일반적으로 부대에서의 일상생활이 명랑하다	3.36(1.00)	0.54	0.91
2	일반적으로 부대 업무 외에 틈나는 시간은 나의 개인적 발전을 위해 보람 있게 쓰려고 애쓴다.	3.50(1.00)	0.40	0.92
3	요즘 신체적 컨디션은 좋다.	3.03(1.13)	0.57	0.91
4	나는 일과시간이 끝나더라도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끝낼 것이다.	3.43(0.98)	0.51	0.91
5	내 동료가 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 기꺼이도와준다.	3.77(0.84)	0.48	0.92
6	나는 내 개인정비 시간에 주특기 공부를 꾸준히 한다.	2.54(0.99)	0.37	0.92
7	나는 개인 주특기 훈련시간이나 병 기본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3.36(0.92)	0.46	0.92
8	일반적으로 군대에서는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2.91(1.11)	0.61	0.91
9	현재 나의 직책은 다른 직책에 비하여 만족스럽다	3.35(1.12)	0.60	0.91
10	군대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나의 직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3.82(1.00)	0.49	0.92
11	군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은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3.28(1.14)	0.69	0.91
12	군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은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3.48(1.15)	0.65	0.91
13	만일 나에게 직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바꾸지 않겠다.	3.24(1.31)	0.48	0.92
14	나는 군대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3.61(0.90)	0.56	0.91
15	나는 임무수행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3.17(1.07)	0.40	0.92
16	대체로 나는 상급자들로 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3.28(1.05)	0.58	0.91
17	대체로 나는 후임들로부터 존중 받는다고 생각한다.	3.40(0.92)	0.51	0.91
18	작업, 훈련, 근무 시간 등이 의미 있게 쓰인다고 생각한다.	2.94(1.12)	0.64	0.91
19	우리 부대 훈련정도와 군기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고 생각한다.	3.38(1.02)	0.54	0.91
20	나는 간부들의 임무수행 능력을 신뢰한다.	3.05(1.09)	0.55	0.91
21	우리 중대의 간부들은 부하들에게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3.13(1.10)	0.54	0.91
22	우리 중대의 간부들은 부하들에게 한번 약속했던 일은 끝까지 지킨다.	2.92(1.14)	0.51	0.91
23	우리 부대는 사병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91(1.04)	0.52	0.91
24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받았을 때도 나의 심정은 별로 괴롭지 않다.	2.56(1.04)	0.36	0.92
25	나는 휴가를 나갔을 때 우리 부대원들과 어울리고 싶다.	3.38(1.05)	0.46	0.92
26	나는 후임이 실수를 하더라도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다.	3.62(0.96)	0.35	0.92
27	나는 바깥 사회에서의 문제 때문에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다.	2.80(1.20)	-0.09	0.92
28	나는 전역 후 사회 진출했을 때 군대 생활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42(1.10)	0.61	0.91
29	제대하고 나의 군대에 대한 인상은 아주 좋을 것이다	3.09(1.09)	0.67	0.91
30	제대 후 전우들이 그리울 것 같다.	3.72(1.04)	0.49	0.92